

국방부, 신검 판정 기준 완화해 현역병 확충

한국 정부가 2021년부터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기준(1~3급)을 완화해 현역의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인구 감소에 따라 현역 자원도 줄어들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전날 "현역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기준을 조정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비만 등의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BMI), 고혈압 등 다수 신체검사 항목에서 현역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국방부에서 신체검사 기준을 마련하면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통해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현역 판정기준을 완화키로 한 것은 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현상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32만명대로 줄어들었고,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임신 가능한 연령기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사상 최저인 0.98명으로 떨어졌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8일 2018년 35만 명 수준이

있던 병역의무자의 수가 2025년 23만 명 수준으로 하락하고 2037년 이후에는 20만 명 이하로 급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9년 말 기준 57만 9,000명인 상비병력을 2022년 말 기준으로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대신 현역의 비율을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병역자원 수급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기준을 변경해 왔다. 앞서 정부는 2015년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현역 판정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최근 현역 판정 비율이 감소했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 비율은 평균 90%에 가까웠으나 이 조치가 시행된 이후 현역 판정 비율이 1~2%가량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1년부터 개정된 징병검사 기준이 도입되면 현역 판정 비율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인구 감소에 따라 현역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연간 2만 8,000명에 달하는 대체·전환 복무인력을 축소하고 현역의 비중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경 제도는 2023년까지 전면 폐지하는 등 인구 감소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병력 감축 대신 정예화된 간부와 군무원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9월 소비자물가 집계 사상 첫 마이너스

지난달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정부는 디플레이션 징후는 아니라고 밝혔다.

1일 '오마이뉴스'가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5.2(2015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통계청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65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038% 하락해 마이너스를 기록하긴 했지만 공식 상승률은 소수점 한 자릿수까지만 따지기 때문에 0.0%로 기록된 바 있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0.8%를 기록한 이후 9개월 연속 0%대를 유지하다가 이번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물가 상승률이 장기간 1%를 밑돈 것은 지난 2015년 2~11월까지 10개월 연속 0%대 상승률을 보인 이후 최장 기록이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농수산물 가격의 하락과 낮은 유가 등 공급 측면의 요인과 유류세 인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 정부 정책적 요인이 작용한 결

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물가 하락세가 디플레이션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역사적으로 디플레이션이 나타난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의 미국과 1990년대 일본의 경우 물가 하락이 3~7년 장기간 지속됐는데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은 이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작년 같은 기간 물가가 높게 상승했던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공급 측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2~3개월 동안은 물가 하락이 예상되지만 연말부터는 0% 중후반대의 물가상승률이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술발전, 아마존 효과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는 현상이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유가 급락에 따른 공급 측 충격으로 단기간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도 90년대 이후 주요국 41개국에서 356회 발생하고 있다."라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물가수준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고 강조했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 ✓ Lease Return
- ✓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 ✓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 ✓ Towing & Rent Car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

